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초등학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그쁘히 갖추어진 평양초등학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초등학원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평양중등학원과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일떠섰는데 정말 보기 좋다고,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아기자기하게 건설을 잘했다고, 평양시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이 지구가 천지개벽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초등학원을 바라보느라니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늘 마음쓰시며 친부모가 되시어 육친의 사랑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진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회한하게 건설된 학원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교사와 기숙사를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운영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평양초등학원의 교사를 현대적이면서도 깨끗하게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초등교육단위의 특성에 맞게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 정보화하였으며 각종 교구비품들도 충분히 갖추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원아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조직과 집단을 위하는 마음을 키워주며 일반기초 지식과 체육에능교육을 충분히 줄수 있도록 김정일애국주의교양실, 소년단실, 자연실, 음악 및 춤보급실 등도 품들여 꾸려놓았으며 복도에 동화적이면서도 직관성과 과학성, 생동성이 보장된 여러가지



그림 등을 붙여놓았는데 모든 공간이 지식홀, 상식홀로 되었다고 하시였다.

2학년 1반에서 진행되는 국어수업도 참관하시면서 교원의 교수방법과 교편물리용정형, 학생들의 인식능력과 그들이 쓰고있는 교과서와 학습장의 질에 대하여 친어버이심정으로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기숙사를 원아들의 동심에 맞으면서도 그들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침실, 식사실, 리발실, 치료실 등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식료품창고에 여러가지 기초식품과 당과류, 과일 등이 그득히 쌓여있을뿐만 아니라 메주덩이까지 달아놓았는데 불만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온 나라가 원아들을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는것이 우리 사회의 기풍, 사회주의조선의 가풍으로 되었는데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초등 및 중등

교육의 질이 어떤가에 따라 고등교육을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규정되며 인재강국화실현의 지름길도 당의 초등 및 중등교육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교원들의 교육자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이고 교육내용과 형식,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교직원들이 원아들의 친부모가 되어 그들의 인격형성과 인간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교양을 구체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원운영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 교훈들을 다른 학원들과 교환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릴데 대한 문제 등 평양초등학원관리운영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초등학원을 돌아보니 마치 동화세계에 들어갔다 나온것만 같다고, 원아들이 정말 좋아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행복의 보금자리

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억세게 자라날수 있게 되었다고, 이곳에서 울려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힘찬 동음소리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의 교육중시정책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자랑스러운 창조물인 평양초등학원을 평양시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건설했는데 조금도 흠잡을데가 없다고, 건축미학적, 교육학적, 위생학적으로 볼 때 자그마한 손색도 없다고,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 우리의 건축술을 이곳을 돌아보아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만족에 대만족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모없는 원아들이 믿고 의지할것은 우리 당밖에 없는 것만큼 평양초등학원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이 원아들이 설움을 모르고 한점 그늘도 없이 대바르고 썩씩하며 밝고 명랑하게 자라도록 자신의 마음까지 합쳐 잘 돌봐주기를 부탁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날 평양초등학원, 평양중등학원 원아들과 교직원들, 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원아들은 세상에 돌도 없는 사랑의 궁전을 지어주시고 자기들을 파사로운 한품에 안아 꿈만 같은 행복을 안겨주신 아버지원수님을 우러러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주의강국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튼튼히 준비해갈 불라는 마음을 담아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본사기자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

얼마전 땅크병, 장갑보병구분대들이 강행도하 및 추격전을 벌려 방어로 이행한 적들을 비행대의 지원하에 소탕하기 위한 협동동작과 전투행동방법을 숙련하여 작전전투계획의 현실성을 확고하고 싸움준비를 더욱 완성하는데 목적을 둔 중강한 땅크장갑보병연대 겨울철도하공격전술연습이 있었다.

그날 연습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안의 모든 땅크, 장갑부대를 그 어떤 작전전투입무도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을 불이 번쩍나게 와닥닥 쓸어버리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전투적성능이 과시된 겨울철도하기재들을 모든 전진보장구분대들에 장비시킬데 대한 문제, 도하기재와 장비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더욱 현대화할데 대한 문제, 공병정찰기재의 현대화, 무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데 대한 문제 등 인민군대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었다.

인민군부대들과 초소들을 시찰하시고 훈련열풍을 북돋아주시며 군력강화와 백승의 방략을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에는 적대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고 강국건설을 앞당기시려는 열화같은 조국애와 떨적의 의지가 어리여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 북침전쟁연습이 계속되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하여 국가의 안전을 지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도 기여하려는 공화국의 립장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우리 공화국은 평화에 호적인 국가이며 강국건설을 목표로 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해 총매진하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오늘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평화적환경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 공화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인민이 잘사는것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군사적위협책동으로 조선반도는 항시적인 긴장상태에 처해있고 인민들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

무분별한 군사적위협과 도전에는 자위적대응이 따르기마련이다. 적대세력의 위협천만한 전 쟁책동에 대처하여 공화국은 핵억제력을 포함한

국가방위의 모든 자위적 수단을 다 갖추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있다. 첫 수소탄시험의 성공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의 성공과 첨단무장장비 연구개발성과, 대륙간탄도탄미사일을 비롯한 모든 작전전투행동에 미치는 계절적영향이 각이한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기상기후특성에 맞게 앞으로 실천화될 강도높은 훈련들을 더 많이 진행하여 하고 무분별한 적대세력은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로켓비발사준비를 《도발》과 《위협》으로 떠들며 여전히 제재압박을 비롯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적대세력의 위협천만한 도전에 대처하여 인민군대는 만단의 격동상태에서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1월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고 전투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군인들이 다병중화된

싸움군들로 준비되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1월이 다 가는 무렵에는 땅크병, 장갑보병들의 겨울철도하공격전술 연습을 지도하시며 강화천과 험준한 산밭들이 요새처럼 둘러싸여있고 작전전투행동에 미치는 계절적영향이 각이한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기상기후특성에 맞게 앞으로 실천화될 강도높은 훈련들을 더 많이 진행하여 하고 무분별한 적대세력은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로켓비발사준비를 《도발》과 《위협》으로 떠들며 여전히 제재압박을 비롯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적대세력의 그 어떤 도전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민군부대들을 위임없이 시찰하시며 백승의 방략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가 있어 인민군대는 일단 유사시 불이 번쩍나게 침략세력을 제압할수 있는 무적의 강군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국가방위력은 철옹성같이 다져지고 있다.

본사기자 리 설



전쟁이 폐가 폐에 막아 전진

평화로운 삶은 인류가 오래도록 갈구해온것이다. 그러나 바란다고 저절로 보장되는 평화도, 평화로운 삶도 아니다. 지금도 세계도처에서는 총들과 전쟁, 공포의 살육전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가장 열점 지역인 조선반도에서는 놀랍게도 평화가 지켜지고 있다. 군사적협박 방법으로 상대국을 위협하고 압살하려는 미국의 광기어린 책동은 조선반도에서 최절정에 달하고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감히 저들이 《악의 축》, 《가장 큰 위협》이라고 비난하는 공화국을 선봉질을 못하고 있다.

왜서인가. 공화국의 군력이 강해서이고 오늘날은 수 소탄을 보유하고 대륙간탄도로켓을 비롯한 각종 핵운반수단들도 갖춘 동방의 핵강국을 잘 못 건드렸다가는 저들이 무사치못한다는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미국의 북침압살기도를 분쇄하고 이 땅의 평화와 겨레의 안전을 굳건히 지켜주고있는 선군은 분명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북이라 해야 할것이다.

북은 저절로 차례지지 않는다.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는 선군과 그것으로 강력히 다져진 군력강화의 위대한 업적을 쌓으신분은 바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그이가 아니셨더라면 우리 겨레는 미국에 의해 몇번도 더 참혹한 전

쟁의 재난을 겪게 되었을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외환경이 엄혹했던 지난 세기 90년대 증반기 그 누구도 민족의 안전을 담보해줄수 없는 맹목한 국제현실을 깊이 통찰하시고 력사에 튼튼없는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쳐치시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영예롭게 지켜내시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령합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과 련이은 자연재해로 나라와 인민앞에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그때 장군님께서는 사탕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 살수 없다

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시고 선군장정의 길을 끝없이 걸으시었다. 아찔한 고지의 칼벼랑 길에서 미끄러져내리는 야전차를 어깨로 미시고 때로는 풍랑사나운 바다 길을 헤치시며 그이께서 걸고계신 선군천만리길은 겨레의 운명과 잇닿은 조국수호, 정의수호, 평화수호의 강행군길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다가 설사 쓰러진다 해도 조국과 민족은 우리를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며 빨찌산식강행군을 이어가신 아버지장군님이시었다. 한겨울에 단행하신 전선시찰이 눈덮인 빙설천지를 헤가르고 온몸을 사정없이 얼구는 강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강행군길이었

다며 한여름의 전선시찰은 땀으로 젖어든 야전복을 말리우며 가야 하는 북더위의 강행군길이었다. 한치한치 과중한 육체적부담을 극복해야 하는 힘겨운 길이었다. 최고사령관이 전선길을 알자면 이런 령길로 차를 몰아봐야 한다시며 철령을 넘으시기도 하였고 험산준령으로 알려진 오성산을 야전차의 터지는 다

이야를 몇번이나 걸아대며 오르기도 하시었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부르시며 선군의 의지를 굳히시고 때로는 한공기의 강병이죽을 드시며 시련을 헤치신 장군님의 로고를 사람들은 오늘도 잊지 못하고 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대가 전진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피눈물나는 길을 헤쳐왔는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난날 것처럼 멀시당하던 우리 민족이 오늘처럼 세계에 빛을 뿌리고 그 존엄을 떨치게 된것은 위대한 정치방식인 선군정치의 덕이라고 하시었다.

정녕 선군이 아니었다면 삼천리강도는 전쟁의 참화를 면치 못했을것이며 우리 민족은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당하게 되었을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그이의 선군정치를 인민을 위한 정치, 민족을 위한 정치라고 격찬하며 《강위력한 선군정치로 민족의 안전과 삼천리강도의 안전, 평화를 수호해나가는 김정일장군님이사야말로 위대한 선군령장》라고 그이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애국위업과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길이 빛나고있다.

은 겨레는 자위의 핵억제력으로 폭제의 핵을 짓뭇개버리는 무진막강한 군력을 마련하시어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자주권을 수호하시는데 또 한분의 탁월한 선군령장을 모시어 민족의 안녕과 번영은 영원히 빛날것임을 굳게 확신하고있는것이다.

김새벽

최근 공화국에서는 강원도 정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태어났다. 지난해 12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으시어 강원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한 불굴의 투사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돌이켜보면 력사에 튼튼없는 간난신고를 헤치며 승리와 영광을 떨쳐온 공화국의 행로마다에는 시대를 대표하고 군대와 인민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시대정신들이 아로새겨져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조국수호정신, 천리마정신,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 백두산영웅청년정신...

백두의 혁명정신,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은 조국의 해방과 전승을 안아왔고 천리마정신과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은 이 땅에 사회주의를 탄생시키고 불패의 보루로 강화발전시켰다.

백두대지에서 청년들이 창조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자기 령도자에게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대군이 있어 공화국은 강하고 양양한 전도를 가진 청년강국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강원도정신도 그러한 시대정신들중의 하나로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강원도인민들의

불굴의 투쟁속에서 새롭게 창조된 시대정신이다.

다 아는것처럼 강원도는 쌀이 많이 나오는 농업지대도 아니고 광물이나 석탄이 풍부히 매장된 자원지대도 아니며 공장, 기업소들이 집중된 공업지대는 더욱 아니다.

그러나 강원도사람들은 어렵다고 주저않은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믿고 자체로 도를 일떠세워야 한다는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하나하나 다져나갔다.

그들은 자체의 힘으로 원산

원자탄보다 더 위력한 정신력의 창조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자력강생의 선구자라는 값 높은 평가를 주시고 새 발전소를 건설하여 도의 전기문제를 원만히 해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그리시고는 친히 《원산군민발전소》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언제와 물길

굴, 발전기설치도 정해주시면서 건설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주체99(2010)년 7월 7일 불철주야의 전선시찰의 길에서 언젠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산군민발전소의 언제를 찾아오면서 보니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원도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이런 곳까지 오시였겠는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들었다고, 이 발전소는 장군님의 체취가 그대로 어려있는 유복자발전소, 우리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이 깃든 발전소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과 혈연의 정을 맺고 사는 강원도인민들이

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을 깨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원산군민발전소는 서해로 흐르는 강물을 동해로 돌려 락차고를 조성하여 전기를 생산할수 있는 류역변경식수력발전소이다.

발전소건설에서 수십km에 달하는 물길굴공사는 가장 어려웠다고 한다. 기성관념으로는 지질학적특성으로 하여 봉락이 심하고 지하수가 많은 구간으로 물길굴을 뚫고나간다는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조선의 귀중한것 (15) ◎

령도자를 받드는 인민의 마음

군민발전소, 원산제염소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웠으며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훌륭히 개건하였었다.

원산군민발전소건설 하나만 놓고보더라도 수령의 유훈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 강원도인민들의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잘 알수 있다.

원산군민발전소에는 강원도의 인민들을 위해 헌신의 자욱을 새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세계가 뜨겁게 새겨져있다.

주체98(2009)년 1월 5일 원산청년발전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원도인민들은

장군님께서 건설을 질적으로 할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까지 발전소건설과 강원도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지난해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푸른물 출렁이며 끝없이 펼쳐진 대인공호수를 바라보시면서 하자 결심한 사람의 정신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고, 대자연의 창조적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다고 힘주어 말씀하시

우리 장군님께 드리는 총정의 산물인 원산군민발전소의 대인공호수에 출렁이는 푸른 물은 강원도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샘줄기로 영원히 뜨겁게 흘러들것이라고, 자신에게는 발전소언제가 하늘이 천만번 무너진대도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의 장벽,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의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위력의 높이로 보인다고, 이 발전소는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이 승배어있는 발전소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강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러

건설자들은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속에서 발과와 콩크리트타임을 하고 고무배와 나무배로 버력과 혼합물을 나르며 사생결단의 돌격전을 벌렸다. 뜻밖의 봉락으로 굴속에 갇혀서도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립시물막이구조물해체전투에도 서슴없이 뛰어들었다. 가슴아픈 희생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순간의 주저나 동요, 비판을 몰랐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살 권리가 없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기어

이 보답해야 한다는 결사의 정

신을 지니고 수년세월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수놓아온 강원도인민들이다. 하여 방대한 건설공사를 도 자체의 힘으로 완공함으로써 원산군민발전소를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보관듯이 일떠세우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금 강원도인민들은 자기 힘으로 안아온 전기덕, 소금덕, 샘물덕을 보고있으며 자력자강만이 살길이라는 철리를 더욱 가슴깊이 새겨안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듯이 강원도정신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승고한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받드시 풀어드려겠다는 총정의 마음이다. 다시말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위해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내대는 결사의 정신, 자력강생만이 살길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안고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의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자력자강의 정신이며 대담하고 통이 크게 목표를 내걸고 그 수행을 위해 모든 시련과 난관도 맞받아 뚫고나가는 굴함없는 공격정신인것이다.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러한 정신을 상상도 할수 없다. 그 무궁무진한 정신력으로 대규모발전소와 현대적인 거리도 짧은 기간에 일떠세우고 사회주의문명강국의 래일을 앞당겨가는 공화국인민들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사람들은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로 꾸려진 로동자합숙을 가리켜 로동자궁전, 로동자호텔이라고 부른다.

그도 그럴것이 7층으로 된 합숙은 로동자들의 생활상편의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게 침실이며 대중식사실, 생일식사실, 체육 및 오락실 등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 있어 합숙생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어 있다. 호실들에는 화려한 침대와 책꽂이, 옷장, 경대 등이 갖추어져있고 세면장에서는 페열을 리용하여 덥힌 물로 샤워욕도 할 수 있다.

합숙건물이 공장의 종합편의봉사시설인 진달래원과 외랑으로 련결되어 있어 합숙생들의 편리를 최대로 보장하고 있다. 매 층의 홀들에는 TV들이 놓여있고 탁구와 윗놀이 등을 하며 문화정서생활을 할 수 있게 합숙의 한계 층이 통채로 실내운동실로 꾸려져 있다. 또 매층마다에 조리실습실도 훌륭히 구비되어 있어 처녀들이 제순으로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먹으며 조리기술도 배울 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태양빛과 지열에 의한 조명과 랭난방체계가 도입된데다가 지붕의 보온능력을 높여주는 수경운실과 버섯재배장까지 아담하게 꾸려져 있어 합숙생들이 한겨울에도 추운줄 모르고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지난 1월초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완공된 로동자합숙을 돌아보시고 공장종업원들이 새로 건설된 합숙을 세상에 들도 없는 로동자들의 궁전, 호텔이라고 한하는데 그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

로동자궁전에서 사는 처녀들

고, 로동자들을 위한 이런 희한한 건축물은 로동계급의 세상인 우리 나라에서만 일떠설 수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을 돌아보시었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었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합숙에 입사하는 공장로동자들을 위해 연회까지 마련해주시는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돌이켜보면 공장이 처음 세워진것은 해방전이었다. 당시 일제는 우리 나라 서북일대의 농촌에서 생산되는 뽕누에고치를 약탈할 목적으로 공장을 세웠는데 재래식제사실비로 꾸린 생산현장에 맞붙여 《합숙》을 짓고 공장두리에는 5m나 되는 울타리를 쌓고 그 우에 다시 세계의 철조망을 늘어놓았다. 아무런 로동보호대책과 로동안전시설도 없는 이런 공장에서 강제로 끌려온 10대의 나 어린 조선소녀들이 하루에 16~18시간씩 고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강도일제를 쳐물리치고 조국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신 다음에야 비로소 공장로동자들은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속에 공장은 현대적인 설비들로 장비되고 탁아소와 유치원, 종합진료소, 로동자합숙, 식당, 정양소, 과학기술보급실, 종합적인 편의봉사시설까지 갖춘 일하기도 좋고 생활하기도 좋은 공장으로 전변되었다.

그런데 오늘은 또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현대적인 로동자합숙이 또 번듯하게 일떠섰으니 이 땅 어디서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높이 울려 퍼지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공장합숙생들은 우리들처럼 복판은 처녀들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믿음과 사랑에 더 높은 생산성과로 보답할 일념뿐이라고 하면서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고 있다.



우리가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이불생산공정이 새로 꾸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공장을 찾은것은 한겨울의 추위가 한창이던 얼마전이었다. 공장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작업현장에 들어서서는 순간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희한한 광경에 절로 탄성이 터져나왔다.

무뚝히 쌓인 눈 같이 흰 비단솜이며 갖가지 색깔의 천들, 아름다운 문양을 짤싸게 수놓으며 돌아가는 다침이불누빔기, 단침이불누빔기, 자수기, 재봉기 등 현대적인 생산설비들...

마치 훌륭한 예술작품이 창작되는 거대한 창작실에 들어선듯 한 황홀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말로만 들어오던 비단이불폭포가 펼쳐지는 희한한 광경 앞

에서 선뜻 발걸음을 땔수 없었던 우리는 이윽고 재단공들이 한치의 천이라도 낭비할세라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가는 재단공정이며 합숙, 봉조공정 그리고 아름다운 꽃문양을 새겨가는 자수공정 등을 차례로 돌

비단이불폭포를 보며

아보았다. 녀성로동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인민들에게 차례질 질 좋은 이불을 만들어가는 생산자의 긍지와 보람이 한껏 어 려있었다.

《지난 1월초 이곳에 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불의 색깔, 무늬가 우리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으면서도 고상하고 아름다울뿐 아니라 이불이 가벼우면서도 부드럽다고 하시면서 상업망들에 나가

면 인민들의 눈길을 끌고 수요가 높겠다고 만족을 표시하시 었답니다.》

직장장 한정금의 공지에 넘친 말이였다.

그의 말을 증명이나 하듯이 제품장고에는 다양한 색깔의 갖가지 이불들이 키높이 쌓여있었다.

예로부터 비단은 여느 천들보다 가볍고 빛깔이 우아하며 손맛이 매우 부드러운 자연섬유직물로서 사람의 건강에 대단히 좋은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비단이불을 인민들이 마음껏 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안아온 비단이불폭포가 아닐수 없었다.

본사기자 김영준

최상의 문명을 누려간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찾은 우리는 로동자들이 즐겨 리용하는 문화후생시설인 진달래원에도 들렀다.

진달래원은 멀리서 보아도 시원하고 상쾌한감을 주었다.

진달래원 홀에 들어서서는 우리의 눈앞에는 희한한 전경이 펼쳐졌다.

폭포를 형상한 대형벽화, 거울같이 알른알른한 바닥, 따스한 봄날에 피는 연분홍색 진달래를 비롯한 화려한 대형화분들, 바위를 꼭게 다듬어 세워놓은듯 한 기둥을 비롯하여 볼수록 황홀한 진달래원의 홀은 마치 궁전을 방불케 했다.

수영장, 목욕탕, 물놀이장, 한증탕 등이 있는 진달래원의 1층 어디서나 기쁨과 랑만에 넘친 로동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한증을 하고나서 수조에 침범 뛰어드는 사람들, 시원한 초음파와 덕수를 맞으며 회열에 넘쳐있는 사람들, 수영선수들 못지 않게 물결을 헤가르며 헤엄을 치는 사람들...

수조에서 나오는 사람들마다 《한걸 거뼉한걸》, 《피로를 푸는데는 초음파이상 없어》라는 나름대로의 심정을 터놓고 있었다.

리광일봉사원은 이곳에서 수중초음파를 맞으면 피로가 저도 모르게 풀린다고, 물안마에 의한 효과가 좋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아온다고 말하였다.

한겨울의 몹시 추운 날씨이

지만 더운김이 물물 나는 수조에서 웃고 떠드는 로동자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당장이라도 물속에 뛰어들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라선형으로 된 계단을 따라 우리는 리발실, 미용실, 탁구장, 청량음료매대 등이 있는 2층으로 걸음을 옮겼다. 리발실과 미용실에서 선남선녀가 되어 나오는 처녀총각들의 환한 미소가 보이는가 하면 신바람나게 탁구치는 중년들과 윗놀이에 열을 올리는 처녀들의 목소리도 귀를 간지럽혔다.

그런가하면 달리기운동기재, 자전거운동기재, 노젓기운동기재를 비롯한 각종 육체운동기재들에서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땀을 흠치던 김윤희조사공은 《하루일을 끝내고 궁궐같

은 문화후생시설에서 즐거운 문화생활을 하느라 시간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디다. 평범한 로동자인 우리들이 최상의 문명의 향유자로 된것이 꿈만 같습니다.》라고 흥여겨워 말하였다.

최상의 문명의 향유자!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많은 부자들을 비롯하여 소수의 특권계층이나 누릴 이런 호화로운 문명이 공화국에서는 근로하는 인민들의것으로 되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으로 끝없이 이어지고있으니 어찌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울려나오지 않겠는가.

정녕 진달래원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속에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려가는 공화국인민들의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애국애족적호소를 심사숙고 하여 대해야 할 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전체 조선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우리의 역사적인 새해호소에 화답하여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한결 같이 바라고있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탄핵정국 속에서 새해를 맞이한 남조선에서는 온 겨레의 통일념원과 평화지향에 역행하는 동족대결 망동이 그칠새없이 벌어져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단합하자는 우리의 진정을 전형적인 《통일전선공세》로, 《도발적인 주장과 협박》으로 매도해나선 괴뢰패당은 갈수록 벌동지처럼 되어가는 제 집안의 한심한 처지도 수습하지 못하면서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의 대결정책을 고수해오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새해벽두부터 《북비핵화》와 《북인권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판에 박은 대결극조를 되풀이하고있는가 하면 매일같이 《북의 위협》과 《예상할수 없는 도발》을 광고하고 《확고한 대비태세》와 《실효적응징》을 고창하고있으며 도처에서 화약내풍기는 북침전쟁소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지금 북남관계는 사상 있어본적이 없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해있다.

북과 남사이에는 민족의 화합과 단합, 통일을 위한 대화는커녕 극도의 대결과 전쟁의 기운만이 무겁게 감돌고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합성이 온 삼천리에 울려 퍼지는 속에 우리 겨레를 그토록 기쁨과 감격에 넘치게 했던

6.15시대의 격동과 환희는 과거의 일로 되었다. 상급회담, 군사회담을 비롯하여 북남사이에 다방면적인 접촉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경제, 문화예술, 체육, 보건 등의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사업이 벌어지던 그 소중한 나날들이 지나간 력사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다.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부정하며 출현한 《리명박근혜정권》의 집권기간 우리 겨레는 실로 많은것을 잃었다. 북남관계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에 활력을 부여주던 대화도 잃었고 협력도 잃었다.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민족끼리의 새 력사를 써나갔던 북남사이에 화해와 신뢰의 분위기는 씻은듯

밖으로는 반공화국제제압박을 지속시켜보려고 《국제공조》강화에 기를 쓰며 친방지축 세상을 돌아치고있다.

우리는 이미 파국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어느 누구도 수수방관해서는 안되며 민족의 근본이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것이라는 것을 천명하였다.

우리의 이러한 립장은 남조선내부정세를 리용하려는 정략적타산도 아니며 여론의 주목을 끌기 위한 손짓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려는 우리의 일관한 자주통일외의 발현이며 내외가 심히 우려하는 현 북남관계의 파국상태를 바로잡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열어나가는 우리의 진지한 애국애족적립장의 표시이다.

우리는 요즘 때없이 《북위협》과 《도발》을 부각시키며 《안보위기》를 고취하는 괴뢰패당의 불순한 망동이 사면초가에 빠진 박근혜의 운명을 건지고 현 탄핵위기를 모면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것을 모르지 않는다.

이 기회에 명백히 해줄것이 있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험악한 내부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무모한 대결과 도발로 나온다

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대신 험악한 대결과 적대의 기류가 들어앉았다. 외세가 몰아오는 열핵전쟁의 불기름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시시각각 위협하고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렬의 70여년, 그동안 세계는

현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 것은 더이상 참을수 없고 용납할수 없는 민족의 수치이다. 나라의 분렬이 지속될수록 우리 겨레가 당하는 피해와 재난은 심해지고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은 커지게 될것이며 나중에는 민족적참화를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파국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수 없으며 민심의 지지를 받을수 없다.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

던 그것은 상상할수 없는 총돌과 전쟁으로 번질질수 있으며 종당에는 괴뢰패당의 수치스러운 파멸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북남관계문제로 될수도 없는 《북비핵화》와 있지도 않은 《북인권문제》를 계속 코에 걸고 미국상전에 매달려 긴장격화를 사래수습의 처방으로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처사는 없을것이다.

시대는 변하고 세상은 달라지고있다.

격변하는 주변정세도 제머리로 판단할줄 모르고 큰 나라에 빌붙어 사는데 습관되어 민족의 진정한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지금처럼 대미추종에 환장하여 돌아치다가는 더큰 치욕과 굴욕이 차례질수밖에 없을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내민 화해의 손을 잡고 민족의 자주적운명을 개척하는 길로 돌아서라는것이 온 겨레의 요구이며 력사의 마지막통고이다.

문제는 남조선당국이 이러한 대세를 외면하고 오는 3월에는 저들의 주도하에 또다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서려고 벌써부터 푼수없이 돌아치고있는것이다.

우리의 전략적지위가 달라

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이다.

그런데 집권기간 파쑈체와

반인민적정책,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아 이미 민심의 탄핵을 받고 산송장이 된 박근혜역적패거리들은 아직도 대결의 궤진 북을 계속 두드려대고 있다. 역적패당은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진지한 노력을 《진정성없는 통일전선공세》로 헐뜯어대는가 하면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을 떠들며 올해 《대북외교안보정책》을 제재압박일변도로 무리 개악하였다. 정초부터는 군부호전광풍을 내몰아 각종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으며 대결분위기를 더욱더 고취해나서고있다.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진 오늘에 와서까지 우리의 코앞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핵전쟁연습이 그 어떤 상상할수 없는 파국적결과로 이어지겠는가 하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에게 대한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앞에서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걸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책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이라고 천명한 우리의 엄숙한 선언을 심사숙고하여 대해야 할것이다.

적대세력들의 핵위협과 북침전쟁책동에 대처하여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배가될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치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진정성있는 선의와 호소를 외면하고 미국에 추종하여 무모한 대결과 전쟁의 외통길로 나간다면 우리의 아량과 인내도 한계를 넘어설것이며 그로 하여 초래될 파멸적후과는 전적으로 괴뢰패당이 지게 될것이다.

시간과 정의를 우리에게 있다는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주제106(2017)년 2월 1일

평 양

겨레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려는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에서다. 공화국에서 반대하는것은 박근혜와 같은 반동일사대매국세력의 반북대결정책이다.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당국자들은 물론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가자는것이 공화국의 원칙적립장이다. 공화국에서 제

안한 통일대회합도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의 각계층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회합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의 동반자로서 민족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애국애족적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북남관계개선으로 나와야 한다.

본사기자 최광혁



시상과 제도, 지역과 리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공보 발표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가 1월 31일 공보를 발표하였다.

공보는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반드시 열어나가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속에 해외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위한 준비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데 대해 열거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종교 등 남조선 각계층 단체들은 7.4공동성명발표 마흔 다섯돌과 10.4선언발표 열둘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성대히 개최하여 조국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놓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어나갈것을 결의해나섰다.

1월 12일 전민족대회 부산지역준비위원회가 결성된데 이어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청년학생통일대회 남측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19일에는 서울에서 각 계층 단체대표들과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남측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진행되었다.

남조선의 서울과 광주, 경상남도를 비롯한 각 지역들과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계층별단체들속에서 두 준비위원회들을 내오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해외에서도 지난해 12월 16일 전민족대회준비를 위한 북, 남, 해외 공동실무위원회 해외측실무위원회를 내내 이어 새해에 들어와 지역별실정에 맞게 전민족대회성사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공보는 북과 남, 해외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개최분위기가 전례없이 고조되고그 준비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속에 2월 상순 중국 심양에서는 전민족대회준비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는 북, 남, 해외 공동실무회의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통일 애국 투쟁에 떨쳐나서자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중남지구협회 대변인 담화 발표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이 《조선민족의 뭉, 우리 겨레를 살리는 통일애국투쟁에 떨쳐나서자》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돌과 10.4선언발표 열둘이 되는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우리 중남지구협회 전체 청년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휘황한 진로를 따라 나아갈 굳은 각오로 가슴 불태우고있

다고 지적하였다. 뜻깊은 이 시각 또다시 거족적통일대진군의 길로 힘차게 부르는 조국의 호소문을 받아안았다고 담화는 밝혔다.

담화는 호소문이 우리 새 세대 청년들에게 온 겨레가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안고 떨쳐나선다면 뚝지 못할 난관이 없고 극복 못할 장벽도 없다는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 민족의 통일시대는 서로를 끌어주며 세계속의 하나

의 민족으로 성장할 때 더 빨리 다가올것이며 통일은 이제 끝이나 노래속에만 존재하는 꿈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눈앞에 다친 현실로 되었다.

조선민족이여! 피끓는 청춘들이여! 통일조국을 위하여 우리 함께 떨쳐나서자.

통일은 그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자신 힘을 합쳐 이루어야 하는 조선민족의 뭉이며 우리 겨레를 살리는 길은 오직 통일애국투쟁의 길뿐이다.

본사기자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장내야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애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이다.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자면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장내야 한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중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다.

지금 북과 남의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며 하루빨리 나라가 통일되기를 념원하고있다. 비록 나라의 분렬로 인해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은 동족끼리 불신하고 적대시해야 할 리유로는 되지 않는다.

동족끼리 비방중상해야 피해를 보는것은 우리 민족자신 뿐이다. 하기에 북과 남은 이미 7.4공동성명과 북남공동선언들을 통하여 서로 비방중상을 중지하며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에 대해

확약하였다.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민족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는 북남관계의 발전을 적극 추동하였다.

그러나 오늘 그 누구의 제도 전복과 《변화》에 기대를 걸고 감행되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불순한 반공화국모략소동과 적대행위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해있다.

비방중상과 자극적인 행동은 북남관계를 해치는 불씨이며 군사적충돌을 유발할수 있는 위험한 도화선이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지금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공화국의 선의있는 애국애족적호소를 두고 《진정성》이니, 《량면전술》이니 뉘나하는 꾀변을 늘어놓다 못해 새해벽두부터 그 무슨 《도발정후》를 운운하면서 《응징》과 《격멸》을 부르짖고 있다. 군사분계선 전구간에 걸

쳐 《대북심리》모략방송을 지속적으로 벌리는 행위도 언제 어떤 화를 초래할지 모를 위험천만한 도발행위로서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라져 살고있는것만도 가슴아픈 일인데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질시하는것은 용납될수 없으며 그것은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쏘는행위이다.

대결의 방법으로는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무력충돌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는것은 지나온 북남관계 력사가 말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이제 더는 하지 말아야 하며 하루빨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평화변명을 바라는 민심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연희

고칠 수 없는 악성종양

사대주의는 큰 나라를 섬기는 노예적굴종사상이고 자기 민족을 멸시하는 민족허무주의사상이다. 그 종착점은 매국과 반역이다. 남조선의 친미 사대주의자들이 여전히 그런 매국배족의 길을 가고있다. 얼마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미국상선들과 차례차례 전화를 했다. 수라장이 된 내부정세로 하여 상선의 눈박에 날카로운 전궁궁하던자들이 저들을 잊지 않고 전화를 걸어 준것에 대해 감격지하여 네, 네 하고 개어울렸음은 두말할것 없다. 또 미국방장관이 첫 해외일정을 남조선으로 정한데 대해 《대단한 사변》처럼 광고하기도 하였다. 마치 기동서방에게 잘 보이려고 아양을 떠는 창

녀의 꼴 그대로였다. 그렇게 세인의 웃음거리로 될 사대굴종의 장면들을 펼쳐놓고 토의했다. 《북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합동군사능력강화와 《동맹강화》 등 미국의 핵전력자산을 끌어들이 동족을 해치려는 공작이다. 빼대없는 팔불출들의 세상웃기는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의 절대다수가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개선》을 열망하면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등 끊어진 고리들을 다시 이을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자나 군부호전세력은 민심의 지향보다 미국상선의 눈치를 먼저 보면서 《북위협》, 《북도발》을 입에 달고다니면서 동족대결에 더욱 극성이다. 남조선공군이 1월 23일부터 2월 3일까지 미7공군과 함께 탐색구조훈련의 외괴를 쓴 공중전제타격준비를 다그치기 위해 《퍼시픽 센터》연습을 벌인것이며 군부우두머리들이 민속명절인 설명절에도 눈 온 날 강아지 싸다니듯 군부대들을 돌아치며 《확고한 대비태세유지》니, 《확실한

응징》이니 하는 대결악담을 붙어댄것은 그 실례이다. 미국없이 한순간도 존재할수 없고 잔명을 부지할수 없는 친미사대주의자들의 대결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외세인 미국은 하내비로 섬기고 한피줄을 이은 동족은 무조건 적대시하고있으니 친미사대가 이런 열간망둥이들을 빚어낸것이다. 언제까지 친미사대의 노예적굴종을 《동맹》으로 분칠하고 극악한 동족대결일성을 《안보》로 가리울것인가. 민족의 자강이 아니라 대국들의 힘을 빌어 국운을 부지하려던 조선봉건왕조의 붕괴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21세기인 오늘도 숭미공미사대에 매달리고있는 쓸개빠진 남조선보수패당이다. 미국의 식민지로 있는 것이 그러도 자랑스러워 《동맹》을 애걸복걸하고 전화 한통만 받아도 실실 기다못해 동족을 없애달라고 가증스러운 핵무기를 구걸하고있으니 친미사대분자들의 사대열병, 대결광증은 난치성증세, 죽어도 고치지 못할 악성종양이 분명하다. 본사기자 류현철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다

1일 남조선 통일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4월 북의 해외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또다시 늘어놓았다. 북과 남은 물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까지 공화국국민들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반인륜적인 집단유인람치행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들을 하려보내라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는데 기겁한 범죄자들의 구차스러운 변명이라 하겠다. 보수패당이 공화국녀성공민들을 집단적으로 유인람치하여 남조선으로 끌고간 때로부터 열달이 되어온다. 이 기간 남조선당국은 그들을 강제역류하고 온갖 반인륜적만행을 다 저질렀으며 서울에 나가 자식들을 만나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부모들의 요구마저 거부하면서 저들의 죄행을 감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보수패당의 이러한 망동은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행위이고 부모와 자식들을 갈라놓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반인권적범죄행위이다. 공화국국민들에 대한 집단유인람치사건 하나만 놓고보아도 남조선보수패당은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운운할 초보적인 체면도, 자격도 없는 패륜아들의 무리라는것이 만천하에 증명되었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새해벽두부터 《북인권상황의 심각성》이니 뭐니 하면서 통일부산하의 《북인권기록센터》를 내세워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북인권실태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북인권조사자문단》이라는것을 구성하는 놀음을 벌리었다. 지난 1월 20일에는 제3차 《북인권정책협의회》라는것을 벌려놓고 그 무슨 《북인권증진》 방향을 논의하였는가 하면 1월 24일에는 당국의 《북인권개선정책》을 자문한다고 하는 《북인권증진자문위원회》라는 모락기구를 통일부에 내오

는 등 반공화국 《인권》 모락소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지금 박근혜패당은 집권기간 저지른 온갖 최악의 《인권》에 대해 운운할 심판을 받고 탄핵위기에 처해있다. 저승길을 달음질쳐가는 가련한 신세에 《인권》이니, 《리산가족문제》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나발만 붙여대는 보수패당의 추태는 만사람의 비웃음만 자아낼뿐이다. 남조선당국이 털끝만큼이라도 《인도주의》에 관심이 있고 《인권》을 입에 올리려면 공화국녀성공민들에 대한 너절하고 비열한 《귀순공작》행위에 대해 공식 시인하고 사죄하며 강제역류하고있는 피해자들을 부모들의 품으로 지체없이 돌려보내야 한다. 아울러 정보원의 모략과 속임수에 걸려 남조선으로 끌려간 공화국공민 김련희도 부당한 구실을 내대며 붙들어둘것이 아

니라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그의 요구대로 당장 송환해야 할것이다. 그렇게도 《인권》을 떠드는자들이 가족이 있는 북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려해제 투쟁하고있는 김련희녀성의 초보적인 인권마저 무참히 유린하면서 《간첩죄》를 들씌우는 등 온갖 박해와 탄압을 일삼고있는것이야말로 모순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자루속의 송곳을 감출수 없듯이 남조선보수패당이 감행한 집단유인람치범죄의 진상과 공화국공민들에 대한 인권유린만행은 날이 갈수록 만천하에 밝혀지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그 누구의 《인권》을 떠들것이 아니라 인권범죄자로서의 저들의 죄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유인람치한 공화국국민들을 지체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산송장의 마지막 발악

지금 남조선보수당국의 반공화국대결광증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역적패당은 《북의 도발가능성이 최대수치에 이르고있다.》니, 《언제든지 핵시험과 미사일발사를 단행할수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그 무슨 《북도발가능성》이라는것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여론화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있다. 이것은 반공화국대결책동에서 살길을 찾는 역적패당의 단말마적발악이다. 박근혜역적패당의 동족대결망동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6년에만도 보수패당은 공화국이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로 단행한 첫 수란시험을 《도발》이라고 매도하면서 미국상선과 함께 조선반도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갔다. 남조선당국은 유엔무대에서 그 무슨 《제재결의》조작에 앞장서 날뛰는 한편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심리전방술을 재개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박근혜역도는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구실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여론화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있다. 오늘에 와서 밝혀진 문제이지만 북남관계의 마지막명줄마저 끊어놓은 이 범죄행위도 《2017년 늦어도 2018년에는 통일이 될것》이라는 선무당년의 황당한 궤변에 따른것이라고 한다. 결국 한갓 선무당에 불과한 최순실의 지령을 충실히 집행한 박근혜때문에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120여개 의 남조선기업과 6 000여

개의 관련기업들이 파산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거기에 종사하던 수만명에 달하는 남조선근로자들이 고통을 겪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동족대결에 환장을 하면 무당년의 낮도깨비같은 수작질에도 통락되기마련이며 나중에는 민족의 준엄한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는것을 증명해보이고있다. 지난해에 남조선인민투쟁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대중적인 반 《정부》투쟁은 파쇼독재와 반인민적정책,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아온 보수당국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다. 최후의 나락에서조차 동족대결에 미쳐있는 역적패당의 쓸개빠진 대결망동은 저들의 황친길만을 더욱 재촉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아닌밤중에 흥두개라더니 남조선보수패당이 노는 꼴이 꼭 그 꼴이다. 지난해 1월 23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오찬간담회를 벌여놓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했다. 그는 《리산가족문제는 남북관계를 떠나 인륜과 천륜의 문제》라느니, 《북에 전면적생사화인, 상봉정례화, 서신교환 등을 지속 촉구해왔으나 북이 호응하지 않은채 무모한 도발만 되풀이하고있다.》느니 뭐니 하며 악담을 퍼부었다. 이날 통일부도 대변인을 내세워 《북이 이 문제에 대해 립장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리산가족상봉은 최우선과제로서 빨리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는 나발을 불어댔다. 극악한 동족대결책동에 매달리며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가

로막아 그들의 아픈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은 장본인이며 공화국국민들을 집단유인람치하여 강제역류해놓고 《새로운 리산가족》을 만들어내고있는 범죄자들인 보수패당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인도주의문제해결을 운운하는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며 철면피의 극치이다. 과연 그들에게 《인륜》과 《천륜》을 운운할 체면이 있는가. 보수패당은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북남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추어짚는 남조선 각계층의 요구에 대해 《국제제재국면이므로 실현되기 어렵다.》느니, 《북에 먼저 제안할 계획이 없다.》느니 하며 로골적으로 거부해왔다. 더우기 해외에 나가있던 공화국의 공민들을 집단적으로 유인람

치하여 가두어놓고는 서울에 나가 자식들을 만나 그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부모들의 요구마저 거절한 인두겁을 쓴 야만들이 바로 남조선보수패당이다. 제반 사실들은 보수패당이야말로 그 무슨 《인륜》과 《천륜》을 떠벌일 한조각의 체면도, 망심도 없는 인간오작품들이 분명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한 패륜아들이 생똥같이 《리산가족》문제해결을 떠벌이며 공화국을 걸고드는것은 저들의 반인륜적, 반인도적죄악을 가리우고 민심과 여론을 기만하며 흩어진 가

족, 친척상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 책임을 전가해보려는 뽀뽀스러운 궤변이며 용납할수 없는 망발이다. 지금 보수패당은 집권기간 저지른 온갖 부정부패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에 저어만을 가져다 준 최악으로 하여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처지에 빠져있다. 운명의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는 박근혜의 노복, 공범자인 황교안과 통일부의 추물들은 쏘수없이 《리산가족》문제를 떠들것이 아니라 궤멸에 직면한 저들의 비참한 운명이나 걱정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리어금

박근혜에게 더이상 기대할것이 없다

남조선신문이 주장 한번도 응한적이 없이 뒤이 얼마전 《설심십 외곡 하려는 박근혜의 황당한 음모론》이라는 제목의 사실을 실었다. 사실은 박근혜가 1월 25일 기자회견이라는것을 가지고 자기의 부정추문사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음모론》까지 들고나온데 대해 밝혔다. 사실은 박근혜가 보수언론을 선택하여 그앞에서 변명을 늘어놓은것은 민심을 돌려놓고 지지층을 규합해보려는 의도에 따른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박근혜가 그동안 《국정》통략에 대한 수사에

한번도 응한적이 없이 뒤이 얼마전 《설심십 외곡 하려는 박근혜의 황당한 음모론》이라는 제목의 사실을 실었다. 사실은 박근혜가 1월 25일 기자회견이라는것을 가지고 자기의 부정추문사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음모론》까지 들고나온데 대해 밝혔다. 사실은 박근혜가 보수언론을 선택하여 그앞에서 변명을 늘어놓은것은 민심을 돌려놓고 지지층을 규합해보려는 의도에 따른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박근혜가 그동안 《국정》통략에 대한 수사에

세계의 핵지형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수소탄까지 틀어쥔 공화국은 명실공히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섰다. 만일 미국이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강국으로 솟아난 공화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무분별하게 덤벼든다면 차례질것은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재가가가 되는 과국적인 재난뿐이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오래전부터 핵으로 공화국과 동북아시아지역을 제패할 어리석은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남조선을 핵전초기지로 만들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핵전쟁연습소동에 광분하여왔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벌써 남조선을 《사할적인 작전지역》으로 삼은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군의 핵무장화를 본격적으로 다그쳤다. 1957년 2월 12일 남조선에 핵무기를 배비할것을 리승만도당과 모의한 미

국은 그해 6월에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제75차회의에서 신행무기반입을 금지한 정전협정 제13항 목적의 폐기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그후 7월에 남조선강점 미군이 《핵무장화에 착수》한다는것을 선언한 미국은 1958년 1월 29일 남조선강점 미군부대들에 핵무기가 반입되었다는 사실

물이다. 미국은 남조선을 핵기지화함으로써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대조선압살야망을 손쉽게 실현하려고 타산하였다. 이러한 범죄목적으로부터 미국은 지금까지 각종 핵무기와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핵화약고로 만들고 북침전쟁연습을 빈번히 벌리

그 누구의 《핵위협》을 떠들며 외세의 핵타격수단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각종 명칭의 북침핵전쟁연습을 연이어 감행하는 한편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골자로 하는 《대량응정보복전략》을 수립하고 《참수작전》수행에 필요한 특수부대를 편성하면서 정밀타격수단

를어지지 않는다. 방대한 각종 핵살인무기로 북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는 침략의 원흉 미국에 맞서 공화국이 정의의 핵타격수단들을 틀어쥔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권리이며 평화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보수세력들은 공화국의 대응조치를 평화에 대한 《위협》과 《도발》로 매도하면서 《압박》과 비열한 제재늘음에 매달리고있다. 선군조선의 권위가 높아지고 국력이 강화되는 데 걸림돌자들의 잡소리에 놀라 선택을 바꿀 공화국이 아니다.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그리고 공화국의 면전에서 년례적이어는 감투를 쓴 핵전쟁연습이 계속되는 한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은 계속 강화되게 될것이다. 신기복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미친년의 입에서는 미친 소리밖에 나올 것이 없다.

온 겨레가 악녀로, 인간 추물로 손가락질하는 남조선의 박근혜가 다 죽은 목숨입에도 어떻게 하나 살아보려고 갖은 권모술수를 쓰며 최후말막하는 불굴은 역도년에 대한 환멸을 더욱 불리일으키게 하고있다.

그는 얼마전 보수론객을 청와대로 끌어들여 진행한 단독인터뷰라는데서도 《최순실사태가 〈거짓으로 쌓아올린 커다란 산〉》이라느니, 《누군가가 기획하고 관리해온 것 같다.》느니 하며 자기의 모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져온 가짜 《정권》

세상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박근혜처럼 거짓과 위선으로 온몸이 찌들어있는 악녀도 없다.

박근혜 《정권》은 그 자체가 거짓으로 쌓아올린 커다란 산이고 온갖 거짓의 대명사이다.

박근혜—최순실 추문사건이 그것을 다 말해주고 있지 않는다.

사람들은 얼마전까지 현 남조선 《정권》을 박근혜 《정권》으로 알고있었는데 투쟁을 벗겨보니 그것은 최순실 《정권》이었다.

《대통령》이라는 박근혜는 연설문도, 회의원고도 최순실이 써준대로 읽고 한갓 선무대에 불과한 최순실은 무대의 뒤면에 보이지 않게 앉아 박근혜를 띄우무르듯 하며 온갖 전횡을 다 부러왔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인민들이 《최순실대통령》, 《박근혜대변인》이라고 조소하였겠는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희귀한 《꼭두각시 대통령》, 《꼭두각시 정

권》이야말로 《정권》이라는 이름을 씌운 거짓의 흉물스러운 본체라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가 권력이라는 큰 비계덩이를 남에게 덥석 넘겨준 리면에는 그의 극도의 무능이 놓여 있다.

그는 능력상 《대통령》이 도저히 될수 없는 인물임에도 자기가 권력을 쥐면 별의별것을 다 이루겠다면서 투표해달라고 인민들을 처참하게 속이였다.

박근혜가 지금껏 해온 수다한 말도 다 거짓투성이였다.

그가 4년전에 펼쳐놓았던 《공약》보따리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공약》의 거의 모두가 가짜,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민을 설기했다던 달콤한 《약속》은 최악의 《국정》통단으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배반당한 남녘인민들은 《이게 나라냐》며 절망과 분노를 터치고있다.

역도년의 입에서 흘러나온 《국민대통합》라령도

그때뿐이고 《대통령》의 눈에 거슬리면 다 《적》이 되는 살벌한 대결풍토가 펼쳐졌으며 사회는 더욱 극심하게 사분오열되었다.

결핍하면 《종북》모자를 씌워 진보세력, 정치적 반대파들을 탄압하고 《검은 명단》을 만들어 1만명에 달하는 문화계인사들을 박해, 제재해 온 박근혜이다.

그는 민심의 사형선고를 받은 지금이 시각에도 《박사모》단체를 비롯한 보수팔통들을 초졸집회가 벌어지는 광장에 내몰아 《맞불집회》라는것을 벌려놓으며 현 탄핵국면을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몰아가려 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싸움을 부추기고있다.

《국민행복시대》, 《국민안전시대》를 만들겠다던 달콤한 말은 어디가고 남조선인민들에게 돌아온것은 일터에서 쫓겨나고 감시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삶에 대한 극도의 불안과 전쟁 공포, 《싸드》배치로 인한 혼란, 자고 일어나면 또 터지는 재앙의 연속이었다.

박근혜의 거짓은 《세월》호참사 하나만으로도 여지없이 증명된다.

오늘 와서 더욱 날날이 드러난것처럼 박근혜는 바다 밑에서 아이들이 살려달라며 울부짖고있을 때 청와대의 골방에 틀고앉아 무려 7시간이나 태평스레 제 올림머리손질이나 하고 얼굴의 주름살을 없애는 《비선》치료를 받고있었다.

그렇게 수백명의 아이들을 바다 밑에서 그대로 숨지게 만든 살인자이면서도 TV화면에 얼굴을 내밀고 없는 눈물을 억지로 짜내며 연

극을 피웠으니 얼마나 뻔뻔스러운 거짓말의 능수인가.

박근혜가 《대북정책》으로 내든 《신뢰프로세스》, 그 화려한 간판의 진짜주소는 개성공업지구라는 신뢰와 협력의 가

나다란 숨구멍마저 막아버리고 북남관계를 모조리 깨놓은 불신 《프로세스》, 대결 《프로세스》, 전쟁 《프로세스》였다.

《기획》의 장본인은 박근혜

지금 남조선에서 진보와 보수, 남녘로소, 지역과 계층을 초월하여 모두에게서 증오를 받고 배격당한것은 박근혜이다.

역도의 지지불이라는것은 거의 0%에 가깝고 초불을 든 수백수천만 민중의 입에서 하나같이 터져 나오는 격한 함성도 《박근혜퇴진》, 《악녀의 구속》이다.

뻔뻔스러운 박근혜는 《그 누군가가 기획하고 관리》해온것처럼 궤변을 늘어놓았으니 남조선

을 사람 못살 민주, 단선, 민생의 생지옥으로 만들어놓은 장본인, 그 흉포한 《기획자》는 거짓말도 래연하게 하고 눈에 살기가 뻔쳐있는 악녀자신이다.

최순실이 《대통령》우리의 《비선실세》, 《선생님》으로 통하며 권력을 좌지우지해온것은 박근혜의 지시와 목인비호를 떠나서는 상상할수 없는 것이다.

국민이 쥐여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제주머니 물건처럼 최순실에게 넘겨준것도 박근혜이고 그가 하라는대로 말하고 지시하고 장, 차관들을 떼고붙이고 한 천하

2014년 5월까지 3 000여 개의 《문제단체》와 8 000여명의 《좌편향인사》에 대한 자로기지가 구축되었으며 문화체육부에서는 그 명단에 기초하여 재정지원을 차단하고 인 《헬조선》, 《망한민국》으로 화한것은 마음속에 저와 최순실만의 사육박에 없는 박근혜악정, 거짓정치의 참혹한 후과이다.

이 경악할 폭거로도 성 차지 않아 박근혜는 《블랙리스트》운영에 저항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해당 부처장, 차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쫓아내는데도 깊숙이 관여하였다고 한다.

이번에 특검이 공개한 데 의하면 수년전 보수단체인 《교섭계전우회》를 동원하여 부당한 리석기내란음모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도록 지시한것도 박근혜라고 한다.

어디 이뿐인가. 퇴임후 비자금마련을 위해 대기업총수들을 만나 구체적인 자금액수가 지직으며 압력을 거듭하게 해 미르, K스포츠헌단설배제명단, 일명 《블랙리스트》의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내리었다고 한다.

특검조사로 밝혀진데 의하면 박근혜는 2013년 9월 30일 열린 수석비서 회의에서 김기춘과 수석비서들에게 《국정지표가 문화통성인데 좌편향문화, 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며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후 청와대의 주도로

만 하면서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를 《공주》로 만들기 위해 저지른 부정부패행위만도 이루 헤아릴 수 없어 듣는 사람 누구나 경악하고 치를 떨지 않을 수 없게 하고있다.

박근혜는 말그대로 온갖 범죄의 대명사이다. 그가 지은 죄는 쌓으면 하늘에 닿고 모으면 온 남녘 땅을 뒤덮을 것이다.

남조선의 초불시위 곳곳마다에서 포승줄에 꽂꽂 묶이운 박근혜를 형상한 조형물들이 등장하고 《박근혜를 감옥으로》라는 민심의 분노의 절규가 터져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기각되면 검찰과 언론부터 〈정리〉 될것》이라며 폭군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박근혜. 민심의 사형판결을 받고서도 되살아나면 초불민심을 사냥하겠다고 사나운 이발을 드러낸 악녀,

그러나 박근혜는 아직도 똑똑히 모르고있다. 거짓을 이기는것은 진실이라

는것을, 독재권력을 이기는것은 민중이라

는것을, 그가 아무리 지랄발광하며 갖은 궤변으로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 해도 감출수도, 덮어버릴수도 없는것이 세상에 날날이 폭로되고 증명된 그의 만고

대역죄이고 멈출수도, 되돌릴수도 없는것이 애비의 무덤속으로 향해가는 그의 죽음의 행차이다.

박근혜의 비루하고 더러운 정치인생의 파멸은 그 자신이 초래한것이고 그 비참한 운명의 마지막 시각은 분분초초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김련옥

민심에 끝까지 도전하는 악녀들

특대형범죄를 저지른 박근혜, 최순실일당이 저들의 종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자 어떻게 하나 사태를 역전시켜보려고 발악적으로 나오고있다.

얼마전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악질보수분자들로 무어진 법률대리인들과 공개적으로 면담하는 놀음을 벌리었다.

여기에서 박근혜는 현재까지 진행된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정형을 보고받고 앞으로의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자기가 직접 법정공방을 벌릴 속심을 드러냈다.

뿐만아니라 박근혜는 탄핵재판에 혼란을 조성하고 어떻게 하나 범죄혐의에서 벗어나보려고 법률대리인들을 내몰아 39명의 증인들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놀음도 벌리었다.

이것은 박근혜가 법률대리인들을 비롯한 줄개들을 내세우던 기존의 방식에 매달리다가는 잔명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보고 직접 나서 현 사태를 역전시켜보려 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순실 역시 자기의 각종 범죄행위를 무작정 인정할수 없다고 우기고있다.

도이칠란드에서 남조선으로 돌아올 당시만 해도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손이야 발이 빌던 최순실은 언제 그랬냐싶이 범죄혐의를 전면부인하는가 하면 《특검의 강압수사》니 뭐니 하며 양탈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야당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는 《발버둥치는 주범들의 추한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결정을 빨리 내리고 특검은 박근혜를 구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쿵위하고 더러운 내막이 속 속 드러나 일파만파의 격랑을 일으키고있는 박근혜—최순실특대형정치추문사건은 남조선정치사상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부정과 부패, 사기와 협잡의 극치이다.

지금도 박근혜, 최순실 추문사건의 진상이 계속 드러나고있는것은 무죄를 떠들며 탄핵정국을 뒤집어엎으려는 박근혜일당의 망동이 얼마나 파렴치한 추태인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전 K스포츠헌단 리사장은 재단을 만든 장본인은 박근혜이며 전국경제인

연합회를 통해 돈을 건울수 있는 사람도 박근혜밖에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가 최순실과 안종범이 롯데기업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며칠전에 롯데로부터 받은 640여만US\$를 빨리 돌려주라고 지시하였다고 증언함으로써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정보를 미리 알고 증거를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비상실명이 꾸려져 작성되었으며 이를 반대한 사람들을 무리로 해임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이로써 이번 특대형추문사건의 주범이 박근혜, 최순실이라는것이 더욱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최순실일당이 만천하에 드러난 저들의 특대형범죄를 한사코 부인하며 뻔뻔스럽게 놀아대는 것은 민심과 정의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티끌만 한 죄의식도 느낄줄 모르는 파렴치한 생떼질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 각계층이 그들의 추악한 행위에 격분을 금치 못하며 박근혜대면

수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시 단행하며 그것도 거부하는 경우 역도년을 체포하여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해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문제는 박근혜, 최순실일당이 순순히 죄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물론 살구멍을 찾기 위해 어떤 흉악한짓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일당이 극우보수패거리들을 부추겨 《계엄령을 선포하라.》, 《초불반란군을 죽이라.》고 선동하며 맞불집회를 벌리게 하고, 연기에 문창국, 김진래, 권영해와 같은 인간추물, 보수팔통들까지 합세하여 망발을 쉼쳐대게 하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거세찬 초불투쟁에 의해 기가 죽어 청와대 안방에 갇혀있는 박근혜가 일정한 시일이 지나자 다시 머리를 쳐들고 독을 쓰려 하지만 그

에 결코 놀랄 남조선민심이 아니다.

남조선인민들의 초불투쟁은 민심이 도전하는 악녀들의 더러운 숨통을 더욱 조이며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남조선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몰아넣고 민생을 파탄시킨 주범들인 박근혜와 최순실을 비롯한 특등범죄자들이 최근 저들의 범죄혐의를 전면부정하면서 발악해나서고 있다.

얼마전 박근혜는 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거짓말로 쌓아올

비밀》을 운운하며 박근혜와 청와대에 대한 특검의 강제수사를 한사코 거부하고있다.

그러나 박근혜를 비롯한 범죄자들이 날이 갈수록 용서받으려는 저들의 범죄행위가 날날이 드러나자 어떻게 하나 파멸

의 나라에서 살아보려고 횡설수설해대고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각계의 격분만을 더욱 자아내고 있다.

최순실도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하고있다.》, 《너무 억울하다.》는 등으로 범죄행위들을 부인하고있다.

공범자들은 그 무슨 《헌법》상의 규정과 《국가

의 나락에서 살아보려고 횡설수설해대고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각계의 격분만을 더욱 자아내고 있다.

야당들은 《수사를 흠집내려는것 같은데 언급생성 꿈도 꾸지 말라.》는 등 《국정》을 멋대로 룹단하고 전국민을 분노와 실의에 빠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내뱉을 말이 아

니다.》,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죄파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고있지 않는 반증》이라고 하면서 더이상 무모한 버티기를 중단하고 자백해야 한다고 범죄자들을 몰아내고있다.

뿐만아니라 남조선 각계층의 초불투쟁을 주도하고있는 《박근혜 정권퇴진비상

국민행동》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만으로도 박근혜가 범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확인된것만큼 박근혜에 대한 강제수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체포명장을 발급해서라도 강제수사를 강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해나서고있다.

본사기자 황진옥

봄을 막아보려는 《얼음공주》

림춘이라지만 아직도 겨울이 기승을 부린다. 낮이면 한풀 죽었던 추위는 해넘어가기 바쁘게 어둠속으로 기여나와 랭기를 뿌려댄다. 다가오는 봄에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는 겨울의 심술을 보니 마치 누군가를 런상케 한다. 《식물대통령》 박근혜, 청와대 구석에 틀어박혀 밤만 축내면서도 자기의 지위를 회복해보려고 독기를 뿜어내고있다. 얼마전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단독기자회견을 하였다. 《얼음공주》의 도도한 기세는 간데없고 초췌하고 피로한, 마치 봄볕에 초라해진 겨울할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속은 살아서 특검과 관련한 질문에 대답했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아니다》, 《모른다》였다. 지난해 《대국민담화》라는 데서 고양이 죽는데 쥐눈물같은 것을 짜며 《죄송하다》고 귀신 씨나락가는 소리를 하던 자제가 아니었다. 박근혜—최순실사건의 모든

것이 《음모》라는 것이다. 후안무치한 생떼이고 파렴치한 발언이었다. 보톡스니, 프로포폴이니 하는 것들을 쓰며 얼굴을 제고 붙이고 문지르고 하더니 낮가죽이 너무도 두터워져 부끄러움도 모르고 마약에 중독되다니 인륜과 양심은 물론이고 녀성의 본성도 인간의 속성마저도 잃어버린 것이다. 하긴 그런 랭혈한이기에 《세월》호의 수백명 아이들이 바다물속에서 허우적일 때 천연연스레 미안한 하고 머리를 다듬고 했을 것이다. 음모라면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에 오른것으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다 흉악한 음모가 아니겠는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니 뭐니 하는 선무당의 주술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권력을

가로챌 선거쿠데타, 자기를 지명공격했다고 하여 합법적인 정당과 언론을 《리직》단체로 몰아 강제해산, 폐간한 정치쿠데타와 언론쿠데타, 제 애비의 친일죄행을 무마하고 《업적》을 미화하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역사쿠데타, 진보적문화인들을 생매장하려고 작성한 《검은 명단》... 그뿐인가. 진보세력을 말살하기 위하여 벌린 《중복소동》, 《북이 붕괴된다》는 최순실의 말에 홀려 강행한 개성공업지구폐쇄, 미일상전들에게 잘 보이려고 백년속적의 천인공노할 죄행을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무마해준 것, 남조선인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주변국들이 항의해도 한사코 고집하는 《싸드》 배치... 그런가 하면 최근에 드러난 것처럼 민심이 들고일어날 때 마다 《우파가 가만있으면 안

된다》면서 《한국자유총연맹》이니, 《어버이연합》이니 하는 수구꼴통들에게 돈을 쫓주면서 맞불집회, 맞불시위를 벌리도록 하여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있다. 박근혜의 집권행적은 시종일관 모략과 강권으로 엮여진 음모의 연속이었다. 팔다리갈림 심복들이 줄줄이 박근혜의 죄행에 대해 고백하고있는데도 《거짓말이다》, 《아니다》라고 뻔뻔스럽게 뇌까리고있으니 인면수심, 얼굴은 분명 사람이지만 속심은 암송냥이 한가지다. 단독기자회견이라는 것도 음모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박근혜가 자기의 자문기구성원이고 보수적세력이 강해 《수준미달인 구우인사》로 불리우는 기자와 단독회견을 한 것은 자기의 대변인이 필요해서였다는 것이다. 자기에게 불리한 대목들을

수정하기 위해 생중계가 아닌 녹화방송을 내보내도록 하였다. 기자회견의 목적도 탄핵심판을 어떻게 하나 연장해보자는 것이고 수구세력의 감정을 불리이켜 자기에 대한 지지를 조금이라도 더 얻어보려는 데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이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은 표표하고 매몰스러운 맹혈인간인 《얼음공주》, 집권기간 남조선을 파쇼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인권동태로 전락시킨 독재권력방, 친미, 친일사대에 환장한 정치창녀, 부남관계를 완전 결판낸 대결악녀에 대한 민심의 응당한 규탄이고 심판으로 된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항상 봄의 화원속에 살고싶은 것은 인류의 소망이다. 폭설에도 거리에 떨쳐나선 초봄민심은 새 정치, 새 생활

의 봄을 그리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이고 의지인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그 초봄민심을 《미국산 소고기수입반대 초봄투쟁의 연장선》이라고 독하면서 《맞불집회자가 두배도 넘는다》는 엉터리같은 말로 서리발을 세웠다고 한다. 그렇게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악녀가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있었으니 남조선이 지금과 같은 엄동설한의 생지옥, 인권 불모지로 더욱 화한 것이다. 자원의 봄은 절로 오는 것이지만 남조선민심이 바라는 봄은 바란다고 하여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남조선인민들이 바라는 희망의 봄을 막아보려고 《얼음공주》가 뻔대고있고 그 졸개들이 또한 발악하고있다.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얼음공주》의 허세를 합쳐진 민심의 초봄이 태워버리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세찬 초봄에 악의 고드름들은 녹아내리고 새 생활의 봄이 그만큼 빨리 올 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남조선에서 《국무총리》 황교안이 《대통령》 선거에 나설 기도를 드러내면서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지난해말까지도 《대선 출마의지가 전혀 없다》고 하던 이자는 새해에 들어와 《신년사》와 《신년 업무보고》 등 각종 모임을 벌여놓고 《경제와 민생은 최우선과제》라느니, 《국민단합과 통합실현》이니 뭐니 하면서 제 몸값을 울려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 또 《테로대책위원회》와 《중앙통합위원회》와 같은 《안보》관련 모의관들에서도 《안보위키》고 취로 보수결집을 꾀하면서 자기 지지세력을 끌어모으려고 발악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명색을 리용하여 미국의 《싸드》 배치책동에 적극 편승하고 트럼프의 대통령취임식에 《축전》을 보내다, 전화통화를 한다 어쩌다 수선을 떨면서 상전에게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 탄핵사태로 지리멸렬된 보수세력내에서도 황교안의 《추대유지임이 본격화》 될것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고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황교안은 박근혜의 특등 심복으로 법무부 장관, 총리를 해먹으면서 청와대 안주인의 수족노릇을

계개선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온 것도 다름아닌 황교안이다. 박근혜탄핵안결로 최악의 궁지에 몰린 지금도 이자는 《북핵문제 등 필요한 분야의 국제공조 지속》과 《관련정책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목에 피대를 돌리며 고아대고 있다.

책을 고집하며 《제2의 박근혜정권》을 창출하려는 것이야말로 초봄민심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우물이지 아닐수 없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야당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도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 《단순히 부역자를 넘어 국정통락, 국정실패의 주역》, 《황교안이야말로 박근혜와 함께 정리되어야 할 대표적인 청산대상》이라고 단죄하면서 《대선》 판에 기웃거리고 사퇴하라고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의 핵심공범자 황교안은 《대선》 판에 더러운 낫작을 들이밀 것이 아니라 박근혜와 함께 감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고영수

그가 이런것이나 보라고 하고있으니 《국정》 운영을 어느 하나도 제대로 했을 리 없다고 항의하였다. 그는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할 박근혜는 국민의 재양거리라고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를 드는 식으로 높아대고 있는 태도에 경악을 표시하였다. 그는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할 박근혜는 국민의 재양거리라고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공범자가 권력을 꿈꾼다

해은 박근혜—최순실추문사건의 핵심공범자이다. 특히 그는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박근혜의 지령에 정보원정치개입사건과 정운회 《국정》 개입사건을 덮어버리고 서울시 공무원사건을 조작하였으며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아나선 특대형 모략사건의 장본인, 파쇼악당이다. 《국무총리》, 《(정권)의 2인자》로서 박근혜의 동족대결정책을 누구보다 앞장에서 집행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부남판

역사대상을 이단화하여 단죄하면 《대선》 판에 기웃거리고 사퇴하라고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의 핵심공범자 황교안은 《대선》 판에 더러운 낫작을 들이밀 것이 아니라 박근혜와 함께 감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고영수

역사대상을 이단화하여 단죄하면 《대선》 판에 기웃거리고 사퇴하라고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의 핵심공범자 황교안은 《대선》 판에 더러운 낫작을 들이밀 것이 아니라 박근혜와 함께 감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고영수

역사대상을 이단화하여 단죄하면 《대선》 판에 기웃거리고 사퇴하라고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의 핵심공범자 황교안은 《대선》 판에 더러운 낫작을 들이밀 것이 아니라 박근혜와 함께 감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고영수

역사대상을 이단화하여 단죄하면 《대선》 판에 기웃거리고 사퇴하라고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의 핵심공범자 황교안은 《대선》 판에 더러운 낫작을 들이밀 것이 아니라 박근혜와 함께 감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고영수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 황교안은 사퇴하라》

남조선에서 박근혜부역자이면서도 주체넘게 다음 권력을 넘보고있는 황교안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얼마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위기속에서 한가하게 자신의 《대선》 출마논의작전에 들어갔는데 사실이 아닐 바란다》며 《박근혜의 탄핵은 황(총리)를 비롯한 내각전반탄핵을 의미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국민의 당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신년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니 한심했다》며 그가 《국무총리》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황교안에 대한 비판 여론은 보수세력들속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 《새누리당》에서 떨어진 《바른정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권행보)로 비추어질수 있

는 부적절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무절제한 행보 이어가 당연한 외교적행위마저 정치적으로 비추어지는 상황이 더욱 격정되고 우려스럽다》며 그의 인기몰이를 비판하였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의 한 의원은 《스스로 사임하고 이를 자기가 수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다시 자기가 임명하고, (대선)에 출마하는 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말도 안되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미친짓》이라고 황교안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가담하였다. 민주진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를 비롯한 사회각계도 기자회견과 담화 등을 발표하여 《최순실뿐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이 모두 반민주적인 인사들》이라며 그 대표적인 인물인 황교안을 《(대선) 판에 기웃대고 모장 취와불을 비롯한 미군도들은 저들의 세균전범죄에 대해 세균탄투하날자와 수량, 장소에 이르기

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세균전에 참가했다가 포로된 미해군육전대 대좌 프랑크 에취. 세버는 《조선에서의 세균전계획전체는 미합동참모본부에서 지시한 것이었다. 1952년 5월에 세균전은 5공군의 지시로 더욱 확대되었다》고 터놓았다. 미제는 세균전계획을 치밀하게 작성하고 추진하였을뿐 아니라 세균을 투하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세균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용수단과 방법의 다양성, 역할성에 있어서 가장 비렬하고 악랄한 대인간살륙전, 조선민족말살전이였다. 미제는 1950년 가을 미합동참모본부에서 이미전부터 준비해온 세균무기를 실전에서 대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비준하고 시험단계와 본격적인 작전단계로 나누어 세균전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1952년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는데 1952년 1월 초 미해군육전대 제1편대 참모장 취와불을 비롯한 미군도들은 저들의 세균전범죄에 대해 세균탄투하날자와 수량, 장소에 이르기

1952년 1월 28일부터 3월 31일에 이르는 2개월 간에 미군공중비행대가 공화국의 400개소 이상의 지점에 700회 이상이나 세균탄과 살인용미생물을 함유한 각종 물체를 투하하였다. 이 두달 동안에 미군이 400여개소의 공화국 각 지역들에 700회 이상이나 퍼부은 세균탄들은 파리, 벼룩, 빈대, 모기 등 유해곤충들이 무수히 들어있었고 그것들은 페스트, 콜레라, 천연두, 류행성출혈열을 비롯한 악성, 급성전염병균들을 폭발적으로 퍼뜨렸다. 미제가 조선전쟁기간 사용한 세균무기들은 악성, 급성, 전염성세균들인 페스트, 콜레라, 천연두, 류행성출혈열, 비탈지, 장티프스, 파라티프스, 적리, 발진티프스, 살모넬라, 식물의 탄저병 등 20여종에 달하였고 세균에 감염시켜 떨어뜨린 곤충과 동물들은 파리(5종), 모기(3종), 벼룩, 빈대, 쥐를 비롯하여 무려 34종이상에 달하였다. 3년간의 조선전쟁기간 공화국에서는 123만 1540여명의 평화적주민

들이 미제의 세균전만행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다. 이 기간 황해도에서는 40만 1940여명, 평양에서는 15만 7840여명의 주민들이 희생되었다. 오늘날 미제는 전체 조국민족을 멸살시킬 목적 밑에 남조선에 탄저균을 쿠비밀리에 끌어들이고 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6차례나 남조선에 탄저균을 끌어들이 실험한데 이어 2015년 4월에는 탄저균과 페스트균 검사용표본을 남조선에 반입했다. 그 누구의 《생화학무기사용》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미군이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각종 세균들은 세관검사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에 주둔하고있던 미육군 23화확대대가 남조선강점 미군2사단 1기갑려단소속으로 남조선에 재배치되었다. 미군 23화확대대로 말하면 제2차 세계대전시기 노르망디상륙작전과 조선전쟁에 참가하여 악명을 떨친 부대로서 미군화학부대들가운데서 실전경험

을 가지고있는 유일한 부대이다. 이런 살인대대를 남조선에 또다시 끌어들이는 것은 이 땅에 핵참화와 함께 생화학전쟁의 재난까지 들쭉우려는 극악무도한 범죄적 기도의 발로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공포의 백색가루》로 알려진 탄저균을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이는 사실도 드러나 내외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실수로 인한 사고》니, 《안전한 폐기처리》니 하며 죽가마뚤듯 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오그랑수를 쓰다못해 《북의 생화학무기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들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감추기 위한 한갓 구실에 불과하다. 이 땅에 또다시 참혹한 세균전의 재난을 들쭉우기 위해 미친듯이 발악하는 미군이 남조선에 있는 한 우리 겨레는 세균 및 화학무기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교원 박사 전 경송

세균전만행의 주범 미국의 추악한 정체

어릴 가나 대중체육의 후끈한 열기

최근 공화국의 그 어디 서나 대중체육열기로 들끓는 이체로운 풍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건만 도처에 홀홀히 꾸러진 체육관들과 체육공원들은 물론 기관, 기업소마다 특색있게 꾸러놓은 체육시설에서 뿜어번지는 드높은 체육열기는 예전 그대로이다. 평양시만 놓고보아도 휴식일이나 여가시간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약속이나 한듯이 추운 날씨와는 무관하게 공원들이나 각종 체육시설들이 갖추어진 곳으로 모여와 탁구와 배구, 룡구, 정구같은 체육경기들을 진행하

군 한다. 이전과 다름없이 인기를 독점하고있는것은 곳곳에 꾸러진 공원들에서 체육활동을 벌리던 과정에 서로 알게 된 사람들이 저마끔 팀을 구성해가지고 진행하곤 하는 배구 경기이다. 나이와 소속, 직위에 관계없이 구성된 이런 팀들은 전문감독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감독》으로 자진해나서서 경기를 지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인지 이들의 경기수준은 전문배구팀 못지않다. 몇진 타격이 성공할 때마다 몸짓, 손짓까지 해가며 경기를 응원하는 사람

들은 저마다 전문선수들의 경기를 보는것 같다고, 정말 불만 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곤 한다. 이와 함께 공화국에서는 각지의 공장, 기업소들마다에서도 부서별, 작업반별 체육경기가 자주 조직되곤 하는데 그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면서 배구나 탁구, 정구와 같은 체육기술을 습득하느라 한겨울철에도 공원에 찾아와 땀을 흘려가며 훈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제는 직장에서도 가정들에서 대중체육활동을 떠난 사람들의 로동과 생활에 대하여 말할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가하면 어느 공원이라 할것없이 로라스케트를 타는 수많은 청소년학생들로 붐비고있다. 주로를 달리는것만으로는 성차지 않은듯 능란한 교예사를 무색케 할 정도로 기교장에서 갖가지 기교를 부리는 학생소년들과 로라스케트를 타며 슬래잡기를 하는 아이들. 추운 겨울날씨이지만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다양한 체육활동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해가는 근로자들로 하여 그 어디 서나 희열과 랑만으로 뿜어번지고있다. 본사기자



한 관리가 아침에 일을 보러 나가면서 각각 흰색과 검은색의 신발을 신고 말뚝에 올라 아무생각없이 가는데 말시중군이 그것을 보고 신을 짝짝이로 신었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 하는것이였다. **유모아**

《내가 색깔이 서로 다른 신을 신었다고 너무 걱정할게 없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하얀것을 보고 검은것은 보지 못할것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검은것만 보게 되고 하얀것은 보지 못할게 아니냐. 그러니 상심할게 없다.》

유모아 짝 신 도 제 멧

매 화 한 그 루 (4)

클 리 빈, 그림 김 윤 일

아마도 우둔한 각정이었던지 말뚝에 깔린 김홍도의 분노를 깨닫지 못한 주인은 벌써 일이 제 뜻대로 되어간다고 단정하고 흥이 나서 떠벌이었다. 《이제 이 꽃이 내 손에 들어오면 우리 집 가보가 되지요. 어째서 가보인가? 우리 주막에 회한 한 흰매화가 있다고 소문이 나면 술한 서울사람들이 꽃구경을 하려고 밀려들러인즉 일단 우리 주막 문턱을 넘어서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 맨입으로 그저 돌아나갈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지요. 이 기막히게 꼭고 향기가 코를 찌르는 꽃과 벗하여 마시는 술맛을 어찌 절색가인이 쳐주는 술맛에 비길수 있겠소?》

김홍도는 매화의 고상한 기풍과 그것을 사랑할 자의 감정이 한갓 길거리 술장사나부랭이한테서 모욕을 당하는것만 같아 분격이 솟구쳤으나 장소가 장소이거니와 상대가 못되는지라 꼭 참고 한마디 야료를 던지였다. 《이 흰매화가 여기에 자리잡고있으면 서울장안의 돈이란 돈은 다 이 주막으로 흘러들겠은즉 과연 가보가 될수 있소.》 《허허! 내 값을 후히 치르고 덤으로 한럭 툭툭히 내리다. 난 한다면 하는 사나이이지요.》

박한 인식에 침을 뱉고싶어 《다들 걷어치우!》하고 험하게 여러 입들을 한 마디로 틀어막아버렸다. 그리고는 그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전형, 그렇게 술만 마시지 말고 밥이랑 탕이랑도 좀 드시우. 하긴 불행한 일이 생겼더니 화술일이지. 리해는 되오만...》하고 서글프게 보이면서 서울에 온 까닭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화술? 웬네, 이거 울 화통이 터져서 어디 마시지 않을수가 있나.》하고 울분을 터트리며 다음과 같은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한달전에 전서방의 열다섯살 난 아들이 고을옥에 갇히였다. 선혜청관하의 곡식창고에 불을 놓았다는 혐의로 해서였다. 고을에서는 전서방의 아들이 창고에서 멀지 않은 양지쪽 산비탈에 손바닥같은 부대기를 일구면서 모닥불을 피웠다것을 그 근거리로 삼고있었다. 자그마한 모닥불에서 불티가 튀

여갔다고는 세살 난 애도 믿지 않을만큼 창고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으나 고을것들은 무작정 전서방의 아들에게 방화범의 감투를 씌워 옥에 처넣었던것이다. 방화범을 붙잡지 못할 때에는 고을관리들이 조정으로부터 벼락을 맞아야 할터이므로 이들은 누구든 엮어넣어 벼락막이로 써먹어야 했던 것이였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험악한 세상이였다. 앞으로 진범인을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낙없이 전서방의 아들이 방화범감투를 벗지 못하고 엄벌을 받게 될판이였다. 전서방은 고을에 찾아가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놓아달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뜬치료술

뜸에 의한 고려치료는 수천년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널리 진행해오는 전통적인 치료방법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석기시대에 돌침과 쑥을 리용하여 병을 치료해왔으며 고려시기에 와서 뜬치료법은 더욱 왕성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930년에는 서경에서, 987년에는 개경을 비롯

한 여러곳에서 의학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여기에는 뜬치료법과 침치료법이 기본으로 취급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편찬된 《향약집성방》의 첫부분에는 혈의 위치와 질병에 따르는 뜬치료술이 기록되어있으며 뜬치료술을 전문으로 취급한 《침구경험방》에는 각이한 질병에 따르는 뜬치료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있다. 오늘 공화국에서 뜬치료방법이 국가적으로 널리 장려되고있다. 난치성 질병들과 고질적인 성인병을 치료하는데서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며 후세에 길이 전해갈 민족의 귀중한 재보로 되고있는 뜬치료술은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 본사기자

누룽지는 독특한 맛과 향기를 가지고있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음식이다. 누룽지는 밥을 뜬들이기 시작하여 3~4분정도 지다면 만들어지는데 이때 가마밑의 높은 온도로 쌀의 전분이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된다. 구수한 맛과 포도당의 단

맛이 어울린 누룽지의 고소함은 세계의 그 어떤 향신료로도 낼수 없는 누룽지의 독특한 맛이고 누룽지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유일한 향기이다. 누룽지의 력사는 수천년전부터 벼농사를 지으며 쌀밥을 주식으로 해온 우리 민족의 유구한 식생활로부터 시작되였다. 쌀로 밥을 지어먹는 일부 나라들도 있지만 누룽지를 식생활과 약재로 리용한 민족은 우리 민족

뿐이다. 예로부터 누룽지는 먼길을 떠나는 남편과 자식들, 서당에 공부하러 가는 자식들의 손에 우리 어머니들과 안해들이 쥐여주던 질은 사랑과 모성애가 깃들여진 보물창고였다. 《동의보감》에도 누룽지를 아무때나 달여마시는 약으로 쓸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누룽지의 효능과 우월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있다. 밥이 익으면서 쌀의 영양분이 아래로 내려와 물린 누룽지는 영양가가 높으면서도 지방분해 촉진효과를 가진 건강식품으로 인정되고있다. 누룽지의 단백질에는 필수아미노산, 비타민 등이 많이 들어있어 유아나 콩단백질보다 피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더 낮추어주며 누룽지의 식용섬유는 혈당량증가를 억제하므로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큰 작용을 한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음식 누룽지

는 친근한 길랑식이며 간식이었다. 하기에 옛 서당에서 천자문을 외울 때 부르던 노래의 가사에도 《하늘천 따(땅)지... 가마밑의 누룽지 박박 끊어서... 오독오독 씹으면 너 무 고소해》라는 구절이 있다. 한편 우리 선조들은 누룽지를 사람들의 건강과 병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재로 널리 리용해왔다. 음식물을 식도로 잘 넘기지 못하는 열격증을 누

는 심장에 위험한 요소 3가지

하나가 나쁘면 2~3가지 증상이 겹치면 발작이 일어나게 된다. 아침출근때에 3가지 요소가 겹치는 경우가 많다. 아침에 일어나기 바쁘게 식사를 빨리 하고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조금 해하는것은 심장병환자에게서 최악의 상태 즉 3가지 요소의 일체순간이라고 할수 있다. 때문에 심장병환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불리고 식사를 천천히 하고 여유있게 출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사기자